

대광맹인불자회 23명 교리강좌 첫 수료

“체계적으로 배우니 마음 든든~”

대구 대광맹인불자회(회장 이재달)가 7월 18일 창립 15년 만에 ‘가장 뜻 깊은 행사’를 가졌다. 지난 3월 14일부터 4개월간 매주 90분씩 이어온 제1회 불교교리강좌 수료식을 거행한 것. 30여명의 회원과 자원봉사자 등이 모인 가운데 열린 수료식은 조촐했지만 마음만큼은 크고 든든했다. 불교교리강좌를 이끌어 온 4명의 포교사가 함께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배웠다는 성취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교리강좌에 한번도 빠지지 않았던 임용은(77)불자가 수료자 23명을 대표해 이재달 회장으로 부터 수료증을 받았다. 그런데 이 회장도 임용은 불자도 모두 앉을 보지 못했다 보니 수료증 하나를 받은데도 자원봉사자가 임용은 불자를 데리고 나와 이 회장이 건네는 수료증에 손을 대어 주고서야 비로소 전달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사소한 일 하나를 수행하는데도 일반인은 도저히 가능할 수 없는 어려

움에 봉착하는 이들이다. 이런 이들이 4개월을 넘는 기간동안 불교교리강좌를 수료했다는 것은 스스로도 대단한 일이고, 이들이 이끌어온 4명의 포교사들에게도 감회가 남달랐던 시간이었다.

이재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둡고 그늘진 곳에 양지 같은 밝음을 주고, 사랑의 샘이 흐르도록 도와주었다”며 포교사와 후원자들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했다. 그리고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겨서 흘러보낼 수 있는 여유롭고 넉넉한 불자가 되어 길가다가 웅덩이에 빠지고 전봇대에 부딪쳐도 감사할 줄 알고 어려운 일을 즐기면서 이겨내는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광맹인불자회는 창립이후 불교교리강좌를 개설하기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번번이 강사를 구할 수 없어 뜻을 접어야 했다. 그런데 이번에 대구경북포교사단이 어려운 일을 했다. 최문성



대광맹인불자회가 7월 18일, 창립 15주년만에 첫 불교교리강좌 수료식을 봉행했다.

창립 15년만의 기쁨 4개월간 매주 90분씩 대구경북포교사단 도움

(반중)단장을 비롯해 김경도(능도), 김진구(일교), 정희수(혜덕) 포교사가 시각장애자들의 오랜 숙원을 풀어준 것이다. 처음 대광맹인불자회는 ‘과연 불교교리강좌를 제대로 마칠 수 있을까’ 반신반의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배우려는 대광맹인불자회원들의 열정과 포교사들의 원력이 만나 더욱 불을 지폈다.

“오제, 팔정도가 뭔지 배웠습니다. 절을 할 때, 향과 촛불을 켤 때는 어떻게 하는지 배웠으니 더 이상 장애자라는 소외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료증을 받은 임용은 불자는 어린아이마냥 좋아했다.

“절하는 법을 배울 때는 법사님이 한 사람 한사람 옆에 붙어서 일일이 자세를 교

정해줬어요. 손과 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만 듣고는 알 수 없었거든요.” 절을 때는 공무런 생활까지 했다는 김복경(74)불자는 일일이 몸으로 가르쳐준 포교사에게 감사할 뿐이다.

서경인(73) 불자는 어렵게 배운 교리를 잊을까 걱정이다. “녹음테이프가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강의자료라도 있다면 집에서 가족들에게 읽어달라고 부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포교사들은 이런 대광맹인불자들의 순수한 열정에 오히려 더 큰 것을 얻었다고 말한다.

“서로가 가진 틀을 깨는 것이 어려웠다”는 김경도 포교사는 “장애 비장애의 틀을 벗고 똑같은 불자로 만나면서 오히려 많은 것을 배우게 됐다”고 말했다.

최문성 단장은 “교양강좌를 이끌면서 장애인들 가운데 포교사가 배워되면 접근성이 더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해왔다”고 밝혔다.

글·사진=배지선 기자 jsun@buddhapia.com

경주시장애인복지관 ‘향기나는 집’ 운영 알록달록 꿈 키운다

비누 생산 통한 자립 경제 지원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종광) 2층의 한 작업장에서는 매일 다양한 색상과 향이 나는 천연비누가 만들어진다. 직업 재활팀이 신체적 장애와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일반사업장에 취업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직종훈련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향기나는 집’이다.

‘향기나는 집’이 제작하는 천연미용비누와 아로마 비누는 송, 황토, 백련초 비누 등 10종류가 넘는다. 모두 정신지체 장애자들이 박세영, 박윤희 선생의 도움을 받아 제작하는 것. 이들은 비누 케이스까지 한지공예를 활용해 직접 만들고 있다.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박세영씨는 “장애자들이라 개량을 하거나 가성소다를 취급하는 것은 다소 무리지만 그 외의 모든 과정은 장애자들이 한다”며, “속도가 조금 늦지만 하나하나 훈련생



경주시 장애인복지관은 비누를 만들어 팔아 생기는 수익금을 모두 정신지체장애인들의 급여를 위해 쓰고 있다.

들의 정성과 땀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값은 천연비누가 120g당 7~8천원, 아로마비누가 3~4천원으로 시중보다 30% 저렴하다. 현재는 3명의 지체장애자들이 매일 5kg정도의 비누를 만들고 있다.

배지선 기자

전통사찰 인근에 채석장 구미사업원 등 반대 성명

구미시 옥성면 복운산 정상에 채석장 개발을 위해 개발사업자가 구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면서 채석장개발사업 추진하는데 대해 대문사를 비롯한 지역불교계와 시민단체 지역주민들이 한목소리로 반대에 나섰다.

구미불교사민연합회(회장 정우) 등 10여개 기관단체들은 최근 “개인이 영리사업을 위해 공공의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그리고 농민들의 생업에 무참한 피해가 초래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들은 문화재인근 지역이므로 문화재전문위원의 평가는 물론 골재 채취법 제22조 2항에 의거 난개발을 억제한 법 취지를 존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채석장개발사업자가 제기한 채석장발허쳐분소송은 7월 19일 2심 공판까지 끝난 상태며, 9월 6일 마지막 판결만을 남겨 놓고 있다.

배지선 기자

새 회장에 김상달 교수 범륜불자교수회 임원 개편

범륜불자교수회는 7월 15~16일 영천 은혜사에서 하계총회회를 열고 제10기 임원단을 선출했다.

17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영남대 응용미생물학과 김상달 교수가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번엔 새롭게 선출된 10기 임원단은 앞으로 젊은 교수들을 영입하고 격월로 성지순례를 떠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배지선 기자

대구교도소 재소자 수계법회

대구교도소 100여명의 재소자들이 7월 18일 대구교도소 법당 광명사에서 동화사주지 허은 스님을 계사로 삼귀의와 오계를 받았다.

이들은 모두 동화사와 대구경북포교사단이 주관한 불교초교리강좌를 1년간 수료한 수용자들로, 수계법회를 통해 부처님의 제자로서 태어날 것을 다짐했다.

배지선 기자

지역불교현장을 찾아서

참나 찾아 길 떠나요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단기출가학교 입학식

7월 19일 오후 3시 30분. 다양한 모습의 선남자 17명이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4층 대법당에 들어섰다.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제3기 단기출가학교 입학식이다.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21일간 영남불교대학 관음사에 머물면서 삭발염의하고 수행생활을 체험하기 위해 들어온 것이다.

14세에서 44세까지 다양한 연령의 입교생들은 단기출가학교에 참가하게 된 사연 또한 다양

각색이다.

최연소 입교자인 이윤철(서울 장충중 1년)군은 어머니의 권유로 왔다. 아동에서 요리사로 활동했던 엄삼호(38)씨는 늘 출가수행자의

의식이 거행됐다.

“머리카락을 무명초라고 하지요. 이것이 번뇌를 많이 일으키게 하지요.” 우하 스님의 한마디가 스치는 가운데 옥불보전 7층 스님 수행관으로 자리매김한 한사람 한사람의 무명초가 시원스럽게 잘려나갔다. 입교생의 표정에는 시원함과 확고한 수행결의가 교차한다.

“착잡하네요. 큰 기대는 없습니다. 단지 체험하고 싶은 뿐입니다” 부산에서 온 이동원(40)씨가 삭발을 앞두고 속내를 보여줬다. 정홍민(23)씨는 “긴장되고 떨린다”고 말했다.

머리가 길어 제일



14~44세 17명 사연도 다양각색... 21일간 출가 수행생활 통해 진정한 불자로 거듭날 것 발원

길을 가고 싶다는 마음이 한편에 자리하고 있었다. 광주에서 온 장경소(30)씨도 출가에 대한 염원이 컸다. 부산에서 화교학교를 나온 정홍민(23)씨는 삶의 변화를 기대해 입교했고, 대구보건대학생인 이승용(20)씨는 어머니의 권유로 쌍둥이 형 이승진씨와 같이 참가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비록 정식출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굳은 원력을 세우고 출가학교의 문을 두드리고 입교생들의 얼굴에는 긴장한 빛이 어려웠다.

“스님처럼 생활하는 21일간의 기간이 평생 살아가는데 있어서 큰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큰 계기가 되도록 서로 도와 끝까지 마치기를 바랍니다.”

영남불교대학 회주 우하 스님이 입교식에서 법문을 마치고 입교생들을 산문에 들이기 위한 의식들이 이어졌다. 연비의식에 이어 21일간 입교생들이 사울할 의발이 전해지고, 입교생들의 머리카락을 한층씩 잘라내는 삭발

머리 삭발을 한 장경소(30)씨는 “1년 이상 머리를 길렀는데 의미 있게 깎게 되어 기쁘다”며 만족해했다. 최연소 입교자인 이윤철(23)씨는 삭발을 앞두고 눈물까지 떨어졌지만 21일간의 수행생활을 마칠것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다.

이제 입교 수행자들은 스님들의 수행관에서 대승생활을 하며 새벽4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잠을 자며 발우공양을 하게 된다. 새벽예불과 대중 율력, 사시참공에 동참하고, 금강경독송, 자비수찰, 다라니독경, 초발심자경문 수업 등 백백한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8월에는 감포도량에서 참선실수를 병행하며 삼보일배와 무문관 체험도 할 예정이다.

21일간의 수행생활을 통해 참된 삶의 의미를 깨달은 진정한 불자로 거듭나길 발원하는 마음만이 가득하다.

배지선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영주지국 : (054)634-3429

대한불교선교종 행사모집

대한불교선교종에서는 승가상 구현을 위하여 본종단의 장기안목으로 종단 운영 및 수행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수행과 교화를 겸수하는 교화종단의 위상을 제고하고, 확고한 종단관과 사명감을 가진 눈 밝은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본종단에서는 6개월간 모든 수행과정(염불, 행정등)을 중비생으로 가르치며 6개월 수료 후 각자 능력에 따라 안거수행할 수 있도록 본종에서 주선합니다.

모집대상(5명 ~ 7명)

1. 고졸 이상 학력의 35세미만 군필자.
2. 부처님의 일불제자가 되겠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는자.
3. 처음 승려가 되고자 하는자.
4. 몸과 마음이 건전하고 건강한 자.
5. 6개월간 단체생활을 할 수 있는 자.

문의

- 주 소 : 부산 동구 수정 3동 844-30번지 성광빌딩 201호
- 연락처 : 051)462-6181, 6652

대한불교선교종 총무원

아직도 신문광고에만 매달리십니까? 불교도 인터넷 시대! 광고도 인터넷 시대!

http://ad.buddhapia.com

주소창에 '애드부다피아'만 치세요

불교 최초 실시간 온라인 광고 사이트 애드부다피아!!

인터넷 세상, 이제 불교계도 모든 광고와 정보를 인터넷으로 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급하게 전해야 하는 사찰관련 홍보나 행사, 법회안내, 그리고 급하게 구하는 구인구직자리... 등 아직도 신문이 나오는 날짜며 기다리며 광고를 하십니까? 이제 애드부다피아가 통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광고의 본질적인 효과를 누리보시기 바랍니다.

애드부다피아는 주요 검색포털사이트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 모회사인 국내 최고의 불교신문인 현대불교신문사와 불교포털사이트인 부다피아와 부다뉴스와 연계하여 전략적인 마케팅 공략을 함으로써 귀사의 소중한 광고를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홍보하여 드립니다.

지금 바로 애드부다피아가로 접속하세요!!

[광고접수문의] 전화 : 02)2004-8213~7, 02)732-1522(직) / 팩스 : 02)737-0696

빠른 속도로 실시간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간지인 불교계의 신문에 광고를 하려면 최소 1주에서 많게는 2주 이상이나 광고접수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홍보기간이 중요한 법외나, 행사 등과 관련한 광고의 경우에는 원하는만큼의 광고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애드부다피아는 실시간으로 바로 광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급박하거나 홍보기간이 중요한 광고에서 최대효과를 약속합니다.

광고 신청도 빠르고 편리합니다!

일일이 전화나 팩스로 광고를 신청해야 하고 또 광고문안이 나오면 다시 확인, 수정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애드부다피아는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또 바로 온라인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부다피아, 부다뉴스가 함께 합니다.

국내 최대의 불교포털사이트 부다피아, 국내 최대의 불교 인터넷 뉴스 부다뉴스와 함께하는 부다피아는 이미 불교계에서 국내 최대의 방문수를 자랑합니다. 애드부다피아는 이러한 부다피아, 부다뉴스와 상호연계하여 광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클릭도출을 극대화할 수 있어 가장 높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광고와 함께 풍부한 정보를 보아 줄 수 있습니다.

한정된 공간으로 인하여 많은 정보를 보여줄 수 없었던 지면광고와는 다르게 애드부다피아에서는 표현하고 싶은 광고의 모든 컨텐츠를 담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는 물론, 보다 역동적인 동영상 서비스로도 광고를 할 수 있으며 언리타드 수정, 보완이 가능한 편리한 광고 시스템입니다.